



보도시점 2023. 4. 26.(수) 12:00
(2023. 4. 27.(목) 조간)

배포 2023. 4. 26.(수) 09:00

과기정통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임상-연구자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 선정

- 6개 센터(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단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를 선정하여
4년간 총 459억 원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바이오 분야 핵심 인재인 의사과학자를 육성하기 위해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 6개를 신규 선정하여 4월 말부터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에서는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것과 의사과학자들이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의과대학 소속의 진료업무가 있는 의사(MD)와 이공계 분야의 연구자(Ph.D.) 간의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공모와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서울 권역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인천·경기 권역에서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구·강원·경북 권역에서는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전·세종·충남·충북 권역에서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서는 부산대학교병원, 광주·전남·전북·제주 권역에서는 전북대학교병원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6개의 기관에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459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센터는 의료 현장에서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사업화 추진을 통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다.

예를 들어, 삼성서울병원은 현재 보유 중인 환자 중심 임상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반 알고리즘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차세대 신의료기술 및 신약을 개발할 계획이다.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교통사고 후유증인 외상성 손상의 제한적인 치료법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포치료제, 광 자극 등 다양한 과학적 접근으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각 센터는 의사과학자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험실 공간을 확보하고 충분한 연구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술사업화 컨설팅, 기업 연계 프로그램 및 바이오산업 현장 연수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그동안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병원에서의 진료부담 때문에 연구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 응모 시 ‘주 40시간 근무 중 16시간 이상의 연구시간 확보’를 약속한 병원장 명의의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의사과학자는 인체와 질병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병원의 풍부한 의료데이터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고급 연구인력이며, 앞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필수적인 융합형 인재”라고 강조하면서, “우수 이공계 인재가 의과대학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에서 의료계의 인재가 의사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 육성사업 개요

담당 부서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생명기술과	책임자	과 장	윤경숙 (044-202-4550)
		담당자	사무관	최윤영 (044-202-4561)
관련 기관	한국연구재단 뇌첨단의공학단	책임자	단 장	김형규 (042-869-7706)
		담당자	담 당	박노을 (042-869-7753)



참고1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 육성사업 개요

□ 과제 개요

- (목표)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를 구축하여 의사과학자를 육성하고 미래의료 생태계 중점기술 개발을 통해 임상현장 난제 해결
- (기간/예산) '23~'26(4년) / 총 459억 원('23년 예산 76.5억, 정부출연금 기준)
※ (국비) 382.5억 원, (참여병원) 76.5억 원

< 연도별 예산(안) (단위:억 원)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 계
국비	76.5	102	102	102	382.5
민간매칭	15.3	20.4	20.4	20.4	76.5
합 계	91.8	122.4	122.4	122.4	459

- (사업규모) 센터 당 연 20.4억 원(국비 17억), 총 6개 센터 지원
※ 권역별(서울/경기·인천/강원·경북·대구/충북·충남·대전·세종/전북·전남·광주·제주/경남·부산·울산) 1개 센터 선정

□ 주요 내용

- (성과창출 공동연구) MD-Ph.D 융합연구 형태로 과제를 구성하여 임상현장에 적용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한 중개연구 추진
※ 연구중점 임상의(전문의 취득 12년 이내)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임상의(MD)-연구자(Ph.D) 공동연구 팀 구성
- (연구환경 조성) 사업 참여 MD의 연구시간 보장 및 연구 관련 교육, 인프라(장비, 공간 등) 지원 등 수행

□ 기대 효과

- 예비 의사과학자들이 R&D 전문성을 습득하고 병원을 중심으로 의사과학자가 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여 의사과학자 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
- 병원의 안정적인 의사과학자 양성·활동 모델 정착을 위해 R&D 지원 역량을 갖춘 병원을 중심으로 중개연구 상용화 성과 및 성공모델 창출